

행복도시 이야기

Vol. 230호
5월



행복청 SNS
바로 가기

이재명정부 1년, 행정수도 세종 ‘기대에서 현실로’

-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본격화,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
- 광역 대중교통 확충,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등 도시 핵심 인프라 지속 구축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년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출발점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를 본격화하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행정수도 공간적·제도적 기반 마련 본격화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발표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행정수도 핵심공간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국가상징구역의 시설 배치와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도시계획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여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상징구역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도 본격도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올해 1월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당선작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건축설계, 부지조성 등 건립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1월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를 실시하고, 5월 당선작을 선정·발표했습니다.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주변 도시축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의 후속 절차 진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안 총 5건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행복청도 관계부처와 함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등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도시기반 강화

국정과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 성장기반 강화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우선 장래 교통

수요를 반영한 광역교통망 재편을 위해 올해 1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4차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연말까지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기반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반석~구암 BRT 1단계 개통과 B2노선 연장 운영을 통해 대전과 행복도시를 잇는 광역 대중교통망이 확장됐습니다. 행복도시권 BRT 연간 이용객도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며, 광역 대중교통이 행정수도권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올해 3월 충남대 의대 개교로 서울대, KDI, 충북대, 한밭대가 참여하는 1단계 임대형 캠퍼스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공주대와 충남대 분양형 캠퍼스가 착공되면서 2단계 조성도 본격화됐습니다. 4생활권이 교육·연구·산업이 순환하는 미래 성장동력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인근에 혁신대학·기업 연계 공간 복합캠퍼스도 조성 추진 중입니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지속 성장하는 행정수도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족기능 유치와 도시인프라 확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년은 행정수도 세종이 구체적인 공간과 제도로 가시화된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에 걸맞은 도시 기반을 함께 확충해 행복도시를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에 나가겠습니다.

행복청, 다가오는 우기 대비 ‘철통 방어’ 나선다. 건설현장 민·관 합동점검

☑ 5.4(월)~6.19(금) 19개소 대상,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한 선제적 안전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가오는 하절기 우기를 대비하여 행복청 시행 및 인·허가 건설현장 19개소를 대상으로 5.4(월)부터 6.19(금)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범부처 집중안전점검’ 계획과 병행하여 시행됩니다. 특히 장마,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하여 배수시설 등 수방계획 적정성, 옹벽(보강토), 석축 등의 균열·파손 여부, 노출 사면에 대한 보호덮개 및 측구 설치 상태, 비계·동바리 등 가설 구조물 설치 및 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복청은 현장 관계자(감리단장, 현장대리인)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안전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와 함께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행복청은 이번 집중안전점검 및 우기 대비 현장점검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연한 소통, 단단한 혁신! 행복청, ‘해피브릿지’ 닳을 올리다

- ✔ 자발적 참여 기반의 내부 혁신 조직,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앞장
- ✔ 현장소통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위한 ‘혁신 아이디어 저장소’ 역할 기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Happy Bridge) 2기’ 발대식을 5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3명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지난해 해피브릿지 1기는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현장 소통 등 3개의 분임을 중심으로 ‘갑질 용어사전 제작’, ‘AI 활용 행정실무 워크숍’, ‘세대공감 릴스 제작’ 등 참신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1기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올해 출범한 2기는 다양한 부서에서 모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올해 해피브릿지는 혁신의 일상화(Innovation to Habit)를 지향합니다. 주요 운영 방향으로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일하는 방식 모색,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 정책현장 방문을 통한 실무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 등입니다.

해피브릿지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민간기업 및 타 공공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청만의 차별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참신한 제안들은 실제 조직 운영 및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서 ‘진정한 행정수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형욱 차장

며칠 전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 현황을 확인하고 형언하기 어려운 벅함을 느꼈습니다. 투표 시작 단 하루 만에 2만 7천 명이 참여했고, 주말을 지나며 참여자는 더욱 늘어 총 5만 명에 육박한 것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 당시의 총 2만 7천 표라는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운 이 뜨거운 열기는 무엇을 의미 할까요? 이는 단순히 멋진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거대한 역사의 엔진이 어떤 모습이야 할 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소망이 그만큼 크고 깊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이번 공감 투표는, 그 한 표 한 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더 이상 공무원 도시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국가적 상징공간’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2004년 행정수도 위원결정이라는 뼈아픈 좌절의 역사를 넘어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라는 다소 긴 수식어 아래서 행복도시를 건설해 왔습니다. 두 번의 강산이 변하는 사이 행복도시에는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새 터전에 뿌리를 내렸고, 인접한 정부대전 청사와 청주의 보건의료 관련 부처, 계룡의 육해공 3군 본부까지 아우르며 이미 국가 행정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옷에 몸을 맞춘 듯한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1년 국회법,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는 마련했지만, 서울에 남겨진 기능과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는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는 행정수도와 관련한 5개의 법안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사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비롯한 핵심 헌법기관을 행복도시를 포함한 ‘행정수도 세종’의 품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그 추진체계를 격상하여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세종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서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이 국민들과 어울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 얼굴이자 시대정신의 산실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20여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마주할지 모르는 위헌 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헌법적 가치를 바라보는 시대의 눈도 변했습니다. 2004년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확연히 다릅니다. 행복도시 이미 국가행정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위기는 이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존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안 국민공감 투표에서 국민이 보여준 폭발적인 관심은 행정수도의 완성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 과제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21년 전의 판단이 그 시대의 최선이였다면, 2026년의 판단은 변화된 국가적 위상과 성숙한 국민적 합의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라는 긴 꼬리표를 떼고, 당당히 ‘행정수도’라는 본연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할 때입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제정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기관을 옮기는 기술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이 상생과 협력의 지방시대를 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담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속한 입법과 국민적 성원을 동력 삼아 ‘행정수도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만들어지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사진 위에, 진정한 행정수도의 꿈이 선명히 그려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행복청, 공공 유휴부지 활용한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 본격 추진

- ✓ 국립어린이박물관에 0.5MW 규모 ‘친환경 에너지 그늘막’ 조성
- ✓ 시민 편의와 탄소중립 동시 실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인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행복도시의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행복청과 한국서부발전(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국립어린이박물관 주차장 및 보행로로, 약 0.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 중 태양광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무엇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며,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시민 편의를 고려한 설계가 적용됩니다. 태양광 설비는 박물관 주차장 및 보행로 상부에 그늘막 형태로 조성되어 이용객에게 쾌적한 그늘을 제공하고, 우천 시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간 특성을 반영해 눈높이에 맞춘 특화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미래세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3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소나무 묘목 약 13만 그루를 식재한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발전 수익의 일부를 어린이 대상 에너지 교육 시설물 조성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중심 공간 조성을 함께 구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대상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갈등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행복청, 공공행정 패러다임 전환 ‘앞장’

☑ 비용은 낮추고 신뢰는 높이고,
‘보이지 않는 갈등’까지 찾아내는 선제적 행정의 지혜

멈춰 설 뻔한 캠퍼스 다시 깨운 중재의 힘, ‘사후 수습’ 아닌 ‘예방 행정’이 비결

공공사업 현장에서 집단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격화될수록 그로 인한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과 정책 불신이라는 사회적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행복청은 ‘갈등’ 자체를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숙의의 한 과정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3월, 세종공동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대형 국책사업의 존립을 흔들 만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기 단축 압박이 맞물리면서 발주처인 LH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폭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장 그해 9월 개교를 손꼽아 기다리던 입주 예정 대학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행복청은 관망자가 아닌 ‘선제적 중재자’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행복청은 단순히 규정만 내세워 압박하기보다 국가정책사업의 상징성과 시민 편익이라는 공통 가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밤샘 협상과 현장 조율 끝에 10여 일 만에 극적인 합의와 공사 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인정받아 행복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평가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숨어 있는’ 잠재적 요인까지 살살아...

현장을 파고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행복청의 성과는 갈등이 터진 뒤에 나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발생 전 진단하고 처방하는 ‘예방의학’적 시스템 덕분입니다. 행복청은 민원과 언론 동향을 상시 분석하여 보이지 않는 갈등 요인까지 선제적으로 포착해 관리합니다. 2026년 현재 행복청이 관리하고 있는 14개의 과제에는 청년 주거 부담을 낮추는 ‘행복기숙사’ 건립부터 국가상징구역 조성 및 대통령 세종실 건립, 상가활성화 대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용 주체와 운영기관 사이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국민 혜택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철저하게 국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행복청은 각 과제의 단계별로 대국민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활성화’ 같이 생활밀착형 현안의 경우, 수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채널을 가동합니다. 이는 단순히 민원을 듣는 수준을 넘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 시켜 갈등의 씨앗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행복청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간접 소통은 물론, 갈등 발생 시 언론 인터뷰와 각종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성과 현장의 만남,

갈등 넘어 신뢰라는 단단한 기초를 다지다

행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갈등관리 우수 부처로 선정되는 핵심 비결입니다. 행복청은 2025년 7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 위원 중심으로 전격 재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중 6명을 민간 전문가로 채웠습니다. 행정 내부의 시각에 갇히지 않은 날카롭고 객관적인 심의와 자문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무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갈등영향분석’ 등 전문기법을 활용해 과학적인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 소통’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의 갈등관리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갈등관리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와 신뢰라는 자산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5교시

행복이와 한글교시



1 ‘귓결’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재미

우연하게 듣게 된 겨를 ☒

2 ‘맨드리’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옷을 입고 매만진 맵시 ☒

서 있을 때의 몸맵시

사자성어 배워가기

일 언 반 구

(一) (言) (半) (句)

아주 짧은 말을 이르는 말

속담 퀴즈 맞추기

- 발에 신 신긴다
- 맹물에 ○○○을 삶아 먹더라도 제멋에 산다
- 얼은 죽에 ○○(이)가 아프다



4교시 속담 퀴즈 정답 ➡

1번 상추

2번 망울

3번 풍각쟁이

행복청, 보도자료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QUIZ

행복청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 2기’ 발대식을 5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